땅과 사람들

9 772508 859008 04
ISSN 2508-8599

땅과 사람들

2021 **February** Vol. 205

LX 한국토지정보공사

집

#homesweethome #layerdhome

땅과 사람들

2021 **February** Vol. 205

2021년 <땅과 사람들>은 이미 도래한 뉴 노멀 시대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틈을 찾아
낯선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외보 <땅과 사람들>

2021년 2월호(제205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정렬

발행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전화
063-713-1166

팩스
063-713-1189

홈페이지
www.lx.or.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XWEBZINE.COM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전염병.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집이 '휴식'의 개념이 강한 안락한
공간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집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가미된 집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여러 욕구가
집 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집이 카페가
되었다가 헬스장이 되었다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반가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무는 사람과 공간의 쓰임에 맞게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테니까요.
이번 호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집에 대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아
독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집이 변했다

AM 9:00

어제 주문해둔 먹거리가 도착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트에 가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장보는 것이 익숙해졌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데다, 전국에서 그리고 SNS에서 유명하다는 맛집의 음식을 큰 수고로움 없이 주문할 수도 있다. 손수 골랐음에도, '어떤 것이 들어 있을까' 하는 설렘은 덤이다. 이것이 택배 박스가 지닌 마법이 아닐까. 오늘의 아점은 맛은 물론 귀여움까지 장착한 재료들로 만든 브런치로 대신하기로 한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PM 1:00

쉬는 공간에서, 게다가 휴원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워 높은 집중력으로 빠르게 해내야 하는 초능력도 가끔 필요하다. 아니면 아이가 혼자서도 오랫동안 잘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장착하거나.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PM 3:00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는 날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 그렇다고 밖에서 걱정 없이 뛰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이에게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엄마의 몫.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엄마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실로 무한하다. 오늘 하루, 아이와 또 무엇을 하며 놀까.

PM 7:00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요즘의 집. 직장이 된 집이 좋은 점 중 하나는 출퇴근으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빠 언제 와"라고 묻는 날이 줄어들수록 아이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늘어난다. 아빠가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는 덕분에 행복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제한됐지만, 가족 간 관계는 더 돈독해졌을지도 모른다.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의 집, 내일은 또 어떤 집이 우리를 맞이할까.

Contents

2021. 02
Vol. 205

보이스아이 바코드
책자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된 바코드는 스마트폰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취 가능합니다.

THEME
집에 대하여

3
Intro
집이 변했다

14
Talk
코로나 블루 시대, 나의 스위트 홈
| 이주혁 작가

18
Hash Tag
베란다의 재발견

22
Interview Ⅰ
우리의 집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 '하이! 어 뉴 홈' 전시 기획자와 작가가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30
Issue
배달 전성시대,
집도 배달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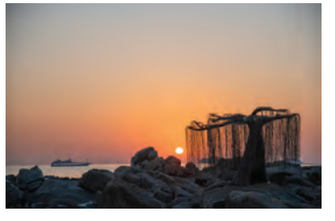
34
Plus
'키트(Kit)'와 함께라면 우리도 프로 집콕러

38
Music
'Ode To My Family' - The Cranberries
| 김창기 전문의

40
Interview Ⅱ
추억이 쌓이는 집이 '좋은 집'이다
|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소장

46
Very
예술가의 집
| 살바도르 달리, 장 프랑수아 밀레, 하르먼스 판 레인 렘브란트

52
우리 삶의 동네
시간을 품은 섬
신시모도



62
우리 곁의 사람
기술의 샘에서 예술의 물을 긷다
| 인장공예 명장 박호영

68
우리 땅의 맛
혹한을 견디어,
달큰한 섬초가 되다

74
LX 사람들
추억 속 로봇을 입체적으로 되살리다
| 프라모델 덕후 이석희 팀장 (경기지역본부 지적사업처)

78
LX Live
더 가까워진 디지털 미래를 보다
CES 2021
| 권건호 기자

82
뉴스 클립

86
with LX

88
독자 의견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로나 블루 시대, 나의 스위트 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틀렸다. 접촉과 어울림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지난 2020년을 빼앗아갔다. 밖에 나가지 않을수록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뻐아픈 역설의 시대에, 이제 집은 철저하게 '비대면 인간들의 소우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글. **이주혁** 그림. **로미**

갈 곳 없는 날들과 나갈 수 없는 집

유튜브를 보며 요가를 한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린다. TV 리모컨을 들고 영화 목록을 끝없이 탐색한다. 화상 통화 버튼을 슬쩍 눌러본다. '슬기로운 실내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새벽에 배달된 식자재로 요리를 한다. 택배 기사님은 이 시대의 구원자인 것만 같다. 괜히 이곳저곳의 먼지를 닦는다. 계속 문지르다 보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라도 마주한 기분이다. 딱히 갈 곳도 없지만 '제발 이 집에서 자유롭게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본다.

어제는 넷플릭스로 좋아하는 뮤지컬 실황을 감상했다. 몇 번을 봐도 지루하지 않은 <레 미제라블>의 25주년 기념 공연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받는 넘버 'One Day More'는 의젓하게 넘어가놓고, 꽤 이상한 지점에서 눈물이 맺혔다. 카메라가 기립 박수를 치던 수천 명의 관객을 비추던 장면이다. 사람들 사이의 꽤 가까운 거리, 얼굴에 번지는 웃음과 환희에 찬 표정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마스크 없이 환한 미소가 생경했던 탓이다. 실소가 터졌다. 그 웃음이 어색해 또 울컥했다. 저 문밖에서 이를 드러내며 웃을 날이 아득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글. **이주혁**
EBS FM <최수진의 모닝스페셜> 메인 작가이자 요가, 스쿠버다이빙, 달리기를 즐기는 라디오 D.J. 카카오브런치 작가로, 삶을 투영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코로나 블루의 시대, '즐거운 나의 집'은 어디에

영어로 "Home, Sweet Home"이라고 표현하면 "역시 집이 최고야. 어딜 가도 집 같은 곳은 없어"라는 뜻이다. 누구나 즐겨 쓰는 이 표현은 영국의 음악가 헨리 비숍 경이 지은 1823년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작품에 처음 등장했다.

Home, home, sweet, sweet home.
집, 집, 오, 즐거운 나의 집.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세상에 내 집처럼 좋은 곳은 없어.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번역된 표현 속에서 흔히 '달콤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Sweet'라는 단어도,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마음에 들 때, '좋은'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즐거운'이라고 번역됐을 테다. 좋은 일이 있을 때, "Oh, That's so sweet. 정말 마음에 들어"라든가, 꽤 괜찮고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He's so sweet. 그는 정말 다정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걸 보면, 'sweet'라는 단어가, 집을 뜻하는 'Home' 앞에 온다 해도 굳이 '왜'라며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만 같다.

즐겁고, 좋은 공간이자 마음에 드는 공간, 집. 사전에 등장하는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을 뜻한다. 칼바람 부는 생업의 전쟁터로 나갔다가도 동물의 '귀소본능'처럼 돌아오는 게 자연스럽고, 지친 몸에 휴식을 허락하는 안온한 공간. 온전한 자유와 편안함을 허락하는 나만의 장소. 2020년,

끝이 보이지 않던 한 해를 보내며 집을 묘사하는 표현에 무언가가 빠졌다고 느끼는 건 나뿐일까. '감염병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공간.' 코로나19 대유행은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 '나를 격리하는 곳, 그동안 밖에서 하던 일을 해내야 하는 곳'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 자가격리라는 단어가 일상이 된 시대라서일까. '격리'라는 단어가 이젠 그리 어색하지도 않다. 1년쯤 지나자 먹고사는 일부터 운동 방식, 모임의 형태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영화 감상, 쇼핑, 취식의 행태도 달라졌다. 비단 일상만 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직업과 꿈까지 바꿔야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흔들고, 불확실성의 안개를 드리웠다.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

나라고 이 안개 속에 자유로울 재주는 없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며 4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그곳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자 황급히 귀국했다. 이 막막한 시간이 1년이나 흐를지 몰랐기 때문에 '한때 즐거웠던 나의 집'을 두고 떠나왔다. 금세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딱히 돌아갈 방법이 없어 발 한 번 들이지 못하고도 10개월째 월세를 부치는 나의 입은 쓰다. 그러니 이런 내게 'Sweet Home'에서 'Sweet'라는 단어처럼 무용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을 시작했다.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할 기회였다. 말레이시아의 스위트 홈이 눈에 아른거려 고민도 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불확실성의 기운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내 안전을 보장해줄 '집'이 필요했다. 집에서 거리가 꽤 먼 방송국을 매일 오갈 자신이 없어 급히 집을 또 구했다. 방송과 원고 작성 빼곤 딱히 다른 일상도 없지만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행운이라면, 나는 이 행운을 천운이라고 기록하고 싶다. 그 공간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 말고는 '이 시국'엔 작은 불평도 쉽게 할 수 없다.

생방송 원고를 매일 쓰다 보니 들리는 거라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적막한 공기를 채우려 틀어놓은 TV 소음뿐이다. 가끔 "쓰레기가 많네"라고 중얼거리거나 빨래를 널다가 허리가 무거워 한숨을 내쉬는 것 외엔 입을 뗄 이유도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마스크를 슬쩍 올려 쓰는 시늉이라도 해야 마음에 부담이 없다.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라는 메시지가 허공에 부대끼며 여기저기로 튕기는 것만 같다.

내 의지대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다. 삶의 거점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바라지 않은 때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생각 조차 해보지 못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는 불혹까지 잘 버텨왔다고 착각했다. "대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해답은 없었다. 그 누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제 세상에 가장 확실한 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선험적 교훈이다. 불확실의 파도를 넘으며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밖에는 누구에게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집 밖으로 나가며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 마스크를 두고 왔을 때라는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모두 평등해진 세상이 왠지 처연하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불혹'을 위해 애쓰며, 더 오래 버티는 방법을 궁리 중이다. 집에서 벗어나지 않을수록 집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역설의 시대에, 미소를 숨길수록 더 빨리 미소를 보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가만 있자, 그때까지 나를 지킬 곳은 이 작은 집밖에 없구나. 집(Home)은 어찌 됐든 스위트 홈(Sweet Home)이었구나. '즐거운 나의 집'. 커피나 내려 마시며 영화나 봐야지. 오늘따라 커피가 유난히 진한 건지, 입안이 껄끄러운 건지, 입이 쓰다.

@pastel211

베란다의 재발견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실에 혹은 방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던 베란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안과 밖을 이어주는 유일한 공간이자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방치되어 있던 베란다 공간을 깨워 캠핑장으로, 카페로, 혹은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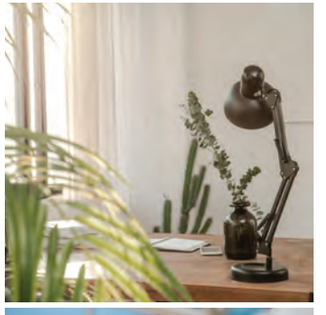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베란다포차

추운 겨울 호호 불어 먹는 뜨끈한 어묵탕과 소주 한 잔이면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하루를 마치며 동료들과 한잔 기울이는 것이 소소한 위로였던 직장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혹은 9시 이후 식사 금지는 참 가혹했다.

밖에서 즐길 수 없다면 안에서 즐기면 되는 일. 지난해 개그우먼 이국주는 자신의 집에 포장마차의 상징과 같은 주황색 타폴린 천막을 치고 실내 포장마차를 만들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방송 이후 주황색 타폴린 천막, 대나무 발, 초록색 플라스틱 그릇 등의 매출이 껑충 뛰어올랐을 정도라고. 최근 흰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면 집집마다 설치된 베란다 포장마차가 SNS에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lovehani_



@kimch

#베란다카페

크진 않지만 평온하게 어딘가에서 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일상의 큰 위로가 된다. 베란다카페는 집 안에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집 밖과 집 안을 두루두루 보며 멍 때릴 수 있다는 것과 오래 있어도, 혹은 어떤 자세로 있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조금만 손을 보면 빨래 건조대로 낭비했던 공간을 나만의 카페로 완성할 수 있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소품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 여기에 나무 느낌이 나는 바닥재 등을 깔아두면 오가기도 편리할 뿐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까지 챙길 수 있다.

@jjui0621

#베란다키즈카페

아이들의 체력은 국가대표도 쉬이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피곤을 모르는 듯한 반짝거리는 눈망울, 멈춤을 모르는 넘쳐나는 체력, 끊임없이 무얼 할까 찾고 있는 호기심까지…. 키즈 카페, 대형 쇼핑몰, 놀이터를 방문할 수 없는 엄마들은 이미 두 손 두 발을 들기 직전이다. 아이들이 늘 놀던 거실이나 놀이방을 지루해한다면 베란다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미끄럼틀과 볼풀을 풀어놓으면 키즈 카페 못지않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마트를 연상케 하는 계산대와 다양한 물품 등을 진열해놓으면 몇 시간쯤 훌쩍 넘길 수 있는 역할 놀이도 가능하다.

@a_lumani

@misdch

#베란다가드닝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여리여리한 연둣빛부터 단단하게 자리 잡은 짙은 초록까지….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러데이션은 언제 봐도 상큼하다.

과거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화분이나 허브, 채소 등의 식용 재배를 목적으로 식물을 키운 것에 반해 최근엔 반려식물이 대세다. 집콕 생활의 답답함, 그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초록의 싱그러움을 처방하는 것.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온·습도, 바람, 햇볕 등 다양한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베란다는 창문을 열어 쉽게 환기할 수 있고, 햇볕이 잘 들며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아 아열대식물을 제외하고는 가드닝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손만 닿으면 식물이 죽는다는 자칭 식물 킬러라면 수경 재배나 선인장 혹은 공중에 걸어 키우는 행잉 플랜트부터 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즐컴

#베란다캠핑

차가웠던 타일 위에 인조 잔디를 깔고 캠핑 의자 두세 개와 테이블, 포근함과 무드를 더해줄 담요, 여기에 알록달록한 갈런드와 캄캄한 밤을 밝혀줄 꼬마전구까지 달고 나면 꽤 그럴듯한 캠핑장이 완성된다.

주말 아침 찌뿌듯한 몸을 깨워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선다.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없는 요즘이지만, 베란다에서만큼은 마스크 없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상쾌한 공기와 바깥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집에서 하는 캠핑은 어른은 물론 아이에게도 신나는 일이다. 버너로 아이와 함께 먹을 음식을 조리하고 캠핑용 그릇에 담아 먹으면 비록 집의 한구석 베란다지만, 마음만은 야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난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하이! 어 뉴 홈(Hi! A new Home)전시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집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코로나19는 집의 역할 또한 바꿔놓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은 안전한 대피소로,
휴식의 공간이자 일터, 학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아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김미련 기획자와 청년 작가 19팀이 바라보고 상상하는 집으로 초대한다.**

글. 두경아 사진. 한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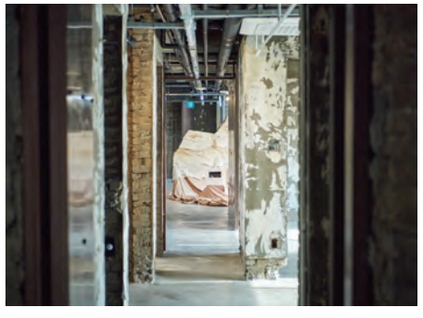
※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바라본 새로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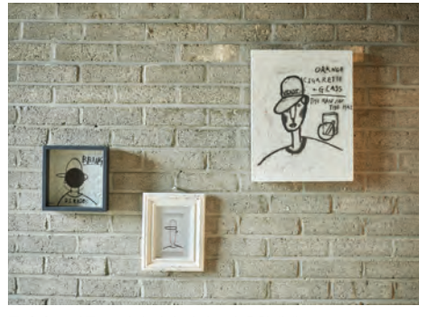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다. 삶의 터전이자 휴식의 공간이던 집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학교, 회사, 피트니스센터, 카페, 극장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

<하이! 어 뉴 홈(Hi! A new Home)>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 전시다. 융·복합 청년예술공간인 대구 수창청춘맨숀에서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는 이 전시는 '새로운 집'을 주제로 전국 단위 공모로 선정한 청년 예술가 19팀과 기획자 김미련 씨가 마련했다. 새로운 집은 다시 '집의 감정', '벙커, 일터, 쉼터, 교육의 집', '초연결 시대의 집', '하이브리드 홈', '관계하는 집' 등 5개의 키워드로 나뉘어 회화부터 VR을 적용한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인다.



김재은 대화의 문_가변크기_혼합매체_2021



주미영 모자를 쓴 남자 연작_가변크기_혼합매체_2021

전시관 자체가 또 하나의 집

이 전시를 기획한 김미련 씨는 젊은 청년 작가들에게 '코로나19와 함께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집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몸속 깊이 일상으로 경험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전환의 시대, 젊은 청년 작가들에게 발랄한 재기와 상상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고 상상하는 새로운 집을 작업으로 풀어내도록 주문했습니다. 특히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 공동주택이었던 것도 의미가 크죠."

수창청춘맨숀은 KT&G 연초제조창 직원들의 관사로 있던 아파트를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낡은 건물 외벽을 살리고 내부는 잘 정돈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도록 했다. 과거 공동주택으로 쓰였던 이 공간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지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역시 전시의 한 부분이다. 작품의 동선을 따라 건물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근대적 공동주택의 건축적 의미와 더불어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가 아닌, 주거의 의미로서 집이 코로나19 이후 어떤 방향으로 성찰되고 인식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집을 "배터리 충전소"라고 정의하면서, 미래의 집은 '인공위성' 역할을 할 거라고 진단한다.

"인간은 누에고치처럼 집에 머무르지만, 전 세계 어디든 연결돼 있어서 집이 저마다 인공위성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웹+세미나의 합성어)'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디서든 유명 학자들의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인공위성처럼 따로 떨어져 있으나 연결된, 이것이 미래의 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클릭으로 연결된 집과 세상

박미정 작가는 '딸각대는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격리된 일상의 집에서 '클릭'으로 연결되는 너와 나의 클릭 소사이어티(Click Society)에 대한 오토마타(Automata: 기계) 설치미술작업을 선보인다. 20개의 일상적인 물건은 각각의 손과 연결되는데, 손들은 기계음을 내며 끊임없이 클릭 중이다. 물건으로 대변되는 '일상'과 초연결 시대를 상징하는 '클릭'을 통해 현 시대를 은유한 것이다.

"저는 클릭이라는 행위에 집중했어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에 점차적으로 모든 소통이 클릭 하나로 가능해졌잖아요. 공감이든 반대든 클릭을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클릭은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중요한 행위이자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끔 클릭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클릭'의 기능적인 것에서 벗어나, 외부 자극에 의해 클릭을 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클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불편한 마음은 시각뿐 아니라 청각에도 녹아있다. 20개의 기계가 일제히 움직이며 클릭 소리와 함께 모터 소리를 낸다.

"관람객 중에 모터 소리나 마찰음이 거슬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음향 자체가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데, 그 부분 역시 제 불편한 감정이 작업에 녹아들도록 연출한 거죠."

박미정 딸각대는 사적인 이야기_가변크기_혼합매체_2020

집 안에서 경험하는 단절과 소통

집에도 감정이 있을까? 서승희 작가는 '집의 감정'을 주제로 'Space out in a room'을 선보인다. 온통 백색의 집 구조물 안에 들어서서 VR 글라스를 쓰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는 이를 통해 고독과 단절을 이야기한다. 기술 발전 덕분에 소통의 기회나 통로는 많아졌지만, 관계의 두려움이나 서로 간의 단절은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다.

"팬데믹 이후 집은 단순히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영역, 보호막같이 역할과 의미가 커졌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로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창문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영상을 통해 고립감, 외로움, 편안함 등과 같은 미묘한 감상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서승희 Space out in a room_혼합재료/VR 영상 설치_가변크기_2021

홍수현 room with a view II_MDF, 각재, LED, LED컨트롤러, 컨트롤러 사운드, 스피커, 케이블_110×180×100cm_2021

집이나 집이 아닌 공간

홍수현 작가는 'room with a view II'를 통해 오랜 타국 생활에서 경계인으로서 느끼는 집에 대한 낯섦과 익숙함의 감정을 공간 설치미술 작품으로 보여준다. ㄱ자 형태의 나무 구조에 따뜻한 전구색과 차가운 백색의 LED등과 사운드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나무 구조가 만들어내는 통로 끝, 꺾여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부터 두 가지 색의 LED등이 불규칙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여기에 작가의 독일 작업실에서 따온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과연 집이란 내 몸이 물리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간인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는 곳인가 등의 질문을 하게 됐어요. 결국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는 제게 독일과 한국은 모두 집인 동시에 아니기도 하다는 결론과 함께, 양쪽 모두에서 느끼는 낯섦과 익숙함이 혼재된 있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 루쓰·윤진초 GARDNER BEAR 반지를 낀 정원사
_공기조형물 LED 조명_150×70×420cm_2020

이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Home'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도 엄마의 품, 포근함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웅녀처럼 전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여자 곰(암컷)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전하는 설화와 풍습, 그리고 곰의 형태를 한 유물들을 보면서 엄마 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번 전시로 가족의 초상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부부가 합심해 만든 결과물, 즉 '가정'의 한 조각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깊다.

"곰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누빔 이불을 생각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저의 그림이 남편의 아이디어와 손을 거쳐 여러 형태의 작품으로 한 점 한 점 완성된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공동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따로, 또 같이 머무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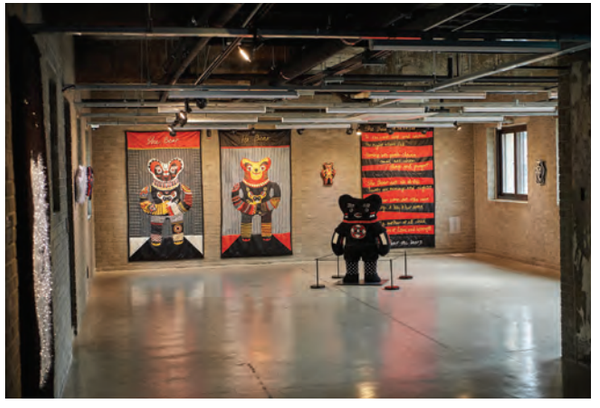
'관계하는 집'에서 미소 작가는 코로나19라는 인류 공동의 재난 이후 사람 간 거리와 소통 방식,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변화를 인터뷰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회화와 텍스트 설치미술로 보여준다. 특히 '사람 간 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채집한 글자들을 창에 나열해 빛이 들어오면 바닥에 그림자로 나타나게 하는 설치미술이 인상적이다.

"저는 '집'을 세계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했습니다. 공공의 재난을 겪다 보니, 무리 짓는 방식도 달라지고 집단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회화에서는 3명의 사람이 구분된 캔버스에 있는데 떨어져 있지만, 꾸준히 함께하려는 모습을 상징화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죠. 또한 사람 간 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완성하는 집의 의미

부부 작가 팀인 알렉산더 루쓰와 윤진초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곰 토템'을 통해 바라보는 집과 공간의 의미를, 따뜻한 느낌을 주는 퀼트 작품과 거대한 크기로 관객을 압도하는 공기조형물로 선보인다. 전시된 작품들은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더베어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한 신작 2점이 더해졌다.

"마침 남편과 함께 엄마 곰, 가족, 모성을 주제로 작업하던 중이었어요. 이 주제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Home)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Bear'는 곰이라는 뜻 외에 '인내하다, 견디다, 잉태하다, 출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저는 그것



미소 A New worldhood_ink on wood panel_488×244cm_2020

배달 전성시대, 집도 배달이 되나요?

취향에 따라 디자인부터 크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도 쇼핑몰에서 고르고 배달받는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다. 미니멀하지만 기능이나 모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제대로 된 집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간삼생활디자인, 스노우피크, 한옥새움, 마룸**

모듈 하우스에 라이프스타일을 더하다

주거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듯 먹방에 이어 집방이 대세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보다 여유롭고 안락한 곳을 찾아 떠나고, 이에 맞춰 가성비, 가심비, 그리고 미니멀한 트렌드까지 두루 갖춘 작은 집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 물건을 사듯 집도 온라인 몰에서 고르고 주문해 배달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작은 집, 모듈 하우스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인 컨테이너 하우스를 상상한다면 이미 옛사람일지도. 최근에는 도심이나 자연 그 어느 곳에 자리해도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자재와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안전을 빼놓을 순 없다.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제작해 완성 후 원하는 곳으로 '배달'되는, 이동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 계산과 내진 설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내에서 출시하는 모듈 하우스 가운데 간삼생활디자인에서 제작하는 ODM(Offsite Domicile Module)은 전문 건축가의 세심한 설계와 기술, 그리고 고객에게 맞춘 라이프스타일까지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세컨드 하우스에 적합한 'nest'와 1인 가구 생활에 맞춘 'mono', 비슷한 취향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ODM village'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듈 하우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판교 태봉산 자락 숲속에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쇼룸을 운영하고 있어 세컨드 하우스, 모듈 하우스에 관심 있는 이라면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감성을 더한 바퀴 달린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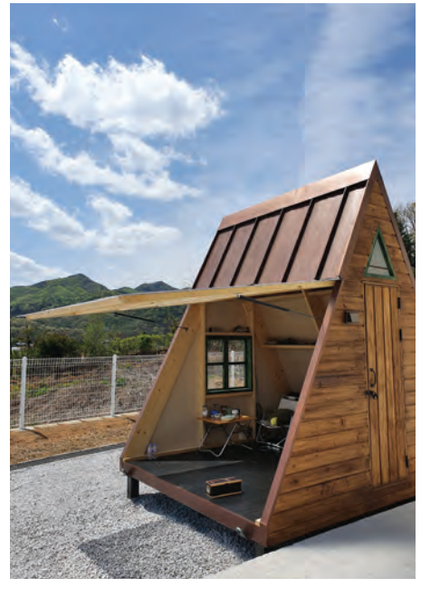
차에만 바퀴를 달라는 법은 없을 터. 캠핑카 열풍에 이어 트레일러 하우스의 인기도 심상치 않다. 이미 해외에서는 여행 하듯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거 생활이기도 하다. 여기에 탁 트인 자연과 함께하는 감성은 덤.

세계적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건축가가 합작해 만든 주바코는 건축가 구마 겐고가 아프리카 여행 당시 떠 올린 집이라고 한다. 작은 나무 상자를 연상케 하는 외관은 자연과 사람이라는 콘셉트하에 외부 풍경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최소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트레일러 하우스뿐 아니라 주바코를 이용한 글램핑장이 여럿 있을 정도로, 캠핑 마니아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내 최초 배달 가능한 한옥

한옥 하면 한옥마을이나 옛 위인들의 생가 등 압도적인 규모를 생각 하게 된다. 기둥과 보를 사용해 전통 한옥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하되, 트렌드에 맞게 미니멀한 형태는 물론 이동도 가능하게 된 한옥. 이를 위해 건축, 문화재, 한옥, 주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뭉쳤다. 필요에 따라 '-', 'ㄱ', 'T', 'ㄷ'자형 등 1칸씩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듈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산 육송과 전통미를 살린 지붕, 서까래 등은 그대로 살리되 LED 조명, 단열 등 실용성은 두루 갖춘 한국판 타이니 하우스 편안한옥.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길 기대해본다.



작지만 아늑한 아지트, 헛(Hut)

자연을 보며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아이들의 비밀 기지, 혹은 공구가 진열된 꿈의 창고…. '작아도 좋은 나만의 공간',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이다. 마룸의 2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 에이하우스는 이러한 꿈을 펼치기에 차고 넘친다. 한쪽 벽면 전체가 활짝 열려 화창한 날이면 평상처럼 활용할 수 있고, 글램핑 공간으로도 충분하다. 오두막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나 혹은 자연 속에서도 멋스럽게 어우러지고, 눈비를 막아주는 금속 강판 지붕은 아웃도어 라이프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셸터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키트(Kit)’와 함께라면 우리도 프로 집콕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감체험은 물론 유명 레스토랑의 다양한 요리와 막걸리까지 집에서 직접 만드는 시대. 재미를 위한 놀이는 무궁무진하고, 세상은 키트로 편리해졌다.

글. **편집실** 사진. **복순도가, 바니그라운드, 퍼밀**

48시간, 우리 집이 양조장이 된다

전통 막걸리를 빚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유의 누룩이다. 누룩과 쌀로 빚은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는 여름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같기도 하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 같기도 하다. ‘캬’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막걸리 한 잔이면, 기분마저 청량해지는 이유다. 마트에서 다양한 막걸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직접 담가 기다림 끝에 마시는 막걸리는 더 꿀맛일 터. 거창한 항아리가 없더라도 막걸리 제조 키트 하나면 내 집이 양조장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생수와 누룩이 함유된 키트, 그리고 48시간의 기다림. 온도와 숙성 기간에 따라 맛과 산미가 달라져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막걸리로 집콕의 재미를 더해보자.

복순도가 브루잉 키트

동그란 트레이 위에 상상의 나래를

바니그라운드 홈 쿠킹 아이클 키트

엄마들은 알 거다. 커다란 화분 받침대같이 생긴 이 트레이 하나가 얼마나 유용하고 다양하게 쓰이는지를. 트레이 하나면 온 집 안이 모래사장이 되는 것도 혹은 물감으로 가구가 알록달록해지는 대참사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육아 시간이 길어지면서 엄마들은 아이와 놀아줄 다양한 ‘놀이’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최근 SNS에 가장 많이 보이는 놀이 중 하나는 아이들의 드라마틱한 반응과 함께 과학적 지식도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화산 폭발 놀이. 이 외에도 코인 티슈를 활용한 애벌레 놀이, 젤리, 흙, 콩 등을 이용한 오감 놀이까지 다양한 키트를 판매해 오늘도 엄마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셰프가든 키트

허브로 풍부해지는 우리 집

식물 하나를 키우더라도 '재배'의 개념이 아닌 '인테리어'의 개념을 더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키트가 출시되고 있다. 친환경 DIY 재배 키트인 셰프가든은 100% 천연 펄프로 만든 생활 방수 페이퍼백을 화분으로 사용해 집 안 어느 곳에 두어도 포인트 인테리어로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활용도 높은 고수, 루꼴라, 바질, 세이지 씨앗을 엄선해 발아율을 높이는 압축 배양토와 비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향긋한 허브를 키울 수 있다.

집에서 키우는 농부의 꿈

맛있는 음식은 신선한 재료에서 비롯된다. 내 손으로 정성스럽게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는 수확의 기쁨을 더해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즐겁게 한다. 흔히 키우는 허브, 토마토, 상추 등이 식상하다면 주목해보자.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키울 수 있는 버섯 재배 키트는 간편하게 물만 주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버섯을 볼 수 있다. 기호에 따라 노루궁둥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고를 수 있으며, 잘 관리하면 2~3회 수확할 수도 있다.

무럭무럭 버섯 재배 키트

'Ode To My Family' - The Cranberries

변화하는 집, 그리고 그에 맞는 가족의 역할에 대하여

글. **김창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The Cranberries 채널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달콤한 도입부로 시작하는 'Ode to my family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가)'는 가수나 제목은 몰라도 '뚜-투르-뚜 뚜-투르-뚜-뚜'로 시작하는 도입부를 들으면 '아 이 노래!'하고 생각나는 곡입니다. 여러 인기 드라마와 코미디 코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1990년대 국민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나 <개그콘서트>의 '두근두근' 코너가 이 노래를 널리 알린 일등 공신이기도 하죠.

이 노래는 달달한 멜로디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을 추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은 물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착한 아이의 역할을 했을 때에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며 사랑해줬지만 어른이 되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지금, 가족도 이 세상도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상처받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받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2021년이 된 지금도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집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집의 의미'에 대한 통계를 보면, 휴식 공간이 압도적 1위였으며, 나만의 사적 공간과 가족과의 공동생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여러 의미에서 집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 학교가 집으로 들어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장의 일부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식과 외식이 자유롭지 못하자 집이 식당과 카페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죠. 밖에서 하던 여가 활동에 제약이 따르자 집이 극장, PC방, 체육관 등의 기능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북적이다 보니 집의 가장 큰 의미이던 휴식과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집은 가족과의 공동생활을 의미하게 되었죠.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집의 의미가 변하자 식구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역할이었죠. 엄마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한 후 누리던 혼자만의 짧은 휴식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삼시 세끼를 차리고 온라인 교육 도우미에 함께 놀아주는 친구 역할까지….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더 하기도 하고, 나아가 아빠와 아이에게 집안일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공부만 하면 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를 다 해도 마음껏 놀지 못하는 데다 엄마를 돕기까지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몇 년은 더 큰 아이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이죠. 착하디착한 내 아이가 짜증을 내고 반항적으로 변하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죠. 이런 갈등과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맛집 기행을 접고 집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가전제품 업계들도 집안일을 덜어줄 제품을 출시했으며, 덩달아 인테리어 업계도 바빠졌죠.

하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집과 가정은 완화가 아닌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집이 과거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복합 기능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 관계와 역할도 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큰 법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걸었던 기대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나 또한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변화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달라진 역할을 보여주며 안정과 사랑을 보여줄 때, 아이도 더 성숙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더 크랜베리스의 싱어 돌로레스 오리어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치고 힘들 때만 가족을 찾아 이해와 위로를 구하는 어린아이 역할을 하려 한 것은 아닌가요?

글. 김창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포크 밴드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1987년 데뷔 이후 33년간 노래로 진솔하고 담백하게 위로를 건네온 그가 노래와 심리학을 통해 사람들을 다독이는 글을 전한다.

추억이 쌓이는 집이 '좋은 집'이다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소장

집이라는 공간에는 '삶'이라는 시간이 쌓인다. 꼬질꼬질 때가 묻어도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은 그래서다. 이의중 소장은 바로 그 '시간'을 존중하는 건축가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 건물을 멋지게 짓는 대신, 누군가의 삶이 스민 옛 건물에 새 숨을 따뜻하게 불어넣는다. 실제 생활도 그와 같다. 80년 된 한옥에 살며 자연을 만나고, 100년 된 얼음 창고를 개조해 사람들을 만난다.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는다.

글. **박미경** 사진. **한정현**

사라지는 집들의 기록

남김없이 밀어버리니 속절없이 사라져버린다. 그 집들이 담고 있던 추억과 온기와 이야기들. 잊히거나 묻히기엔 너무나 소중한 삶의 조각들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가 된 지 올해로 3년째다. 재개발로 '없어지는' 동네들을 뜻 맞는 이들과 함께 조사하면서,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그의 애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말끔히 사라지기 전에 살뜰히 살펴보는 마음. 단지 그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갈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인천으로 이사 온 게 2015년이에요. 유서 깊은 동네를 좋아해서 동인천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혼자 답사해왔어요. 그러다 인천에서 활동해온 오석근 사진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함께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 2018년부터 같이 답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난 곳이 중구 신흥동의 적산가옥이다. 인천개항장 언저리에 있는 신흥동은 일제강점기(1930년대 후반)에 생성된 주거 중심 동네다. 집의 형태나 용도가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여태' 주민들이 살아온 이곳이 재개발의 이름으로 철거되고 있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로 그들은 '기록'을 선택했다. 예산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사람들을 모았고, 지역에서 활동해온 작가와 큐레이터와 연구자들이 '동인천탐험단'의 이름으로 합류했다. 2019년에 펴낸 <신흥동 일곱주택>이 그들의 첫 결과물이다. 이 한 권의 책 덕분에, 7채의 집에 쌓인 80여 년의 삶을 '완료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만날 수 있다.

※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1

2

1. 인천아트플랫폼 내 인천의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한 인천서점
2. 시민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인천화교협회 회의청

"요즘엔 부평구 산곡동의 영단주택을 조사 중이에요. 일제강점기 부평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었어요. 영단주택은 그곳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단지인데, 1,000세대에 가까운 집이 모두 한옥이에요. 노동자들의 삶에 맞춘 개량 한옥이죠. 몇 년 뒤 광복이 되고 주민들의 삶에 맞게 꾸준히 변형돼온 그 집들이 내년 8월 철거를 앞두고 있어요. 아직도 주민의 10%가 그곳에 살아요. 그 집들이 품어온 삶들을 또 한번 제대로 기록해야죠."

새로 짓는 건축에서 '고쳐 쓰는 건축'으로

'철거'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다.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
그가 살던 5층짜리 잠실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라는 명분 아래 사라졌다. 부서진 건 집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이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한글과 구구단을 배우던 학교를, 피아노며 태권도를 익히던 학원을, 땅따먹기며 숨바꼭질을 하던 놀이터를 한꺼번에 잃은 것이다. 떡볶이를 사 먹던 상가도, 놀이동산이 부럽지 않던 공원도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명백한 '실향'이었다.
주택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기뻐하기엔, 수치로 환산할 수도 없는 추억들이 너무 소중했다.
"그동안의 내 삶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건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새로 짓는 건축에서 '고쳐 쓰는 건축'으로 자연스레 관심이 옮겨갔죠."
졸업 후 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 당시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는 '본래 모습이 남지 않도록' 모조리 뜯고 완전히 바꾸는 거였다. 자신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그곳을 나와, 2005년 오래된 건축물이 즐비한 일본 교토로 날아갔다. 400~500년 된 건물들이 흔하게 서 있는 그 도시에서 어학 공부를 하고, 이듬해 고베예술공과대학원에서 전통 건축을 연구했다. 2년간 100군데의 일본 전통 마을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보존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졸업 후엔 구라시키에서 재생 건축을 하던 나라무라 도오루의 설계실에서 3년간 일했다. 일본의 '재생 건축 1세대'인 나라무라는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자신의 경험을 그에게 기꺼이 나눠줬다. 이의중 소장은 도시와 건물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현장실무를 익히며 배워나갔다.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내엔 아직 재생 건축이란 개념이 없더라고요. 막막한 날들을 보내다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때 국내 곳곳의 원도심을 가봤고, 그 가운데 인천에 마음을 빼앗겼죠. 변화가 느린 동네라는 게 참 좋았어요. 원도심에 오래된 건축물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데도 여느 도시보다 저평가됐더라고요. 도시와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어서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왔어요."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래된 집, 새로운 이야기

재생 건축물로서 그의 첫 작품은 이곳 '아카이브카페 빙고'다. 1920년에 지은 얼음 창고를 손수 고쳐 사람들을 만나고 일거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14평 공간을 손보는 데 무려 6개월이 걸렸다. 좁은 골목 속 작은 공간이기에, 기계 대신 손으로 작업해야 했다. 강원도의 나무를 들여와 실내를 꾸몄다. 문밖으로 오솔길 같은 골목길이 나 있어 숲속의 농막처럼 아늑하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골목이에요. 골목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잖아요. 사람이 온전히 주인이죠. 주택가의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공용 마당이었어요. 평상을 놓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랑방이었고요. 과거 우리의 집들이 그토록 따뜻했던 건 골목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후 그가 작업해온 건축물에는 하나같이 '오랜 역사'가 스며 있다. 1965년에 지은 쪽방형 숙소 '인천여관'을 음반 레이블인 '루비살롱'과 함께 고쳐 새로운 문화 공간(인천여관×루비살롱)으로 재탄생시켰고, 1930년대에 건축된 일본식 벽돌 창고를 개조해 인천영상위원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인 인천화교협회 회의청(옛 청국영사관 부속 건물)은 그의 설계로 복원돼 시민 문화 공간이 됐고, 한국전쟁 때 전소된 뒤 다시 지은 옛 인천여고 건물은 그의 손길을 거쳐 청년들의 문화 창작소로 변신했다. 근대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인천아트플랫폼 안에는 인천에 관한 모든 책을 만날 수 있는 '인천서점'이 있다. 이 역시 그의 작품이다. 공간에 쌓인 '시간'이 그 모두에 오롯이 살아 있다.

"집은 계속 변화하는 공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문화재와 달리,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알알이 새겨지는 곳이죠. 지금 저는 1940년에 지은 한옥에 살아요. 집에 마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코로나19 시국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열 살짜리 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마당에서 보냈거든요. 여름엔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어 같이 놀았어요. 봄, 가을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수없이 했고요. 겨울이 온 후론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안에서 놀아요. 하늘 담긴 마당만 갖고 있어도 삶은 이렇게 풍성해져요."

우리의 '그리움'이 그의 삶에 가득하다. 마당 안 웃음꽃이, 골목 위 이야기꽃이, 문득 가슴에 사무친다.

예술가의 집

집은 어떠한 공간도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겐 쉼의 한 공간일지 모르지만, 예술가에겐 삶과 더불어 작품의 영감을 받는 혹은 그들의 작품 세계관을 완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랑한 예술가,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을 소개한다.

글·사진. <예술가가 사랑한 집> 이케가미 히데히로 지음, 류순미 옮김, 페이퍼스토리

달리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달걀의 집

살바도르 달리

Portlligat E-17488 Cadaqués, Spain

Salvador Dali

1904~1989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청량한 지중해를 품은 스페인 카다케스는 스페인이 낳은 천재 화가 달리가 사랑한 장소로 유명하다. 카다케스에 있는 포르트리가트마을은 달리의 작품에 커다란 영감을 준 곳이기도 하다. 마을에 즐비한 기암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에 착안해 달리는 '더블 이미지'라는 표현 기법을 탄생시켰는데, '비키니섬의 세 스핑크스'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기도 하다.

달리는 이 마을에서 어부의 낡은 집 4채를 구입해 무려 40년에 걸쳐 집을 고쳤다. 집 외관부터 내부까지 구석구석 달리가 좋아하는 소재와 오브제로 구성되어 집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 셈. 특히 중정에는 달리의 작품에서 '생명', '숙명' 등을 표현하는 중요한 모티프인 달걀 오브제가 지붕 위를 비롯해 곳곳에 놓여 있다.

집은 크게 주거 공간과 아틀리에, 정원 등 3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커다란 창으로 자연광이 가득한 달리의 아틀리에에는 오리지널 작품뿐 아니라 미완성 작품도 진열되어 있어 이곳 어딘가에서 그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은 생동감이 전해진다.

농부이자 화가인
밀레의 소박한 시골집

장 프랑수아 밀레

27 Grande Rue77630
Barbizon, France

Jean-François Millet

1814~1875

밀레가 살던 마을 바르비종은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퐁텐블로 숲 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퐁텐블로 숲이 왕가의 사냥터로 사용되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후 풍경을 그리려는 이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숲을 찾은 사람들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간느 여인숙에서 머물렀는데, 밀레의 가족 역시 이곳에 머물다 이주를 결심하고 지금의 밀레기념관이 된 이 집을 구입했다.

집 뒤로 난 넓은 정원은 본래 그가 농사를 짓던 밭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밭에서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며 생활했다. 농촌 아낙네 3명이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밀레의 대표작 '이삭줍기' 역시 이곳에서 제작되었다.

'씨 뿌리는 사람', '만종' 등 그의 작품 대부분에 농촌의 소소한 일상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나온 것은 그가 하는 일과 바라보는 풍경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밀레의 집이 일반 농가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큰 아틀리에와 채광을 고려한 커다란 창이다. 벽면에는 그의 유명한 작품들의 밑그림이나 데생이 진열되어 있고, 당시 보급되기 시작한 사진기로 촬영한 풍경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또 실제 밀레와 아내, 9명의 아이가 함께 식사하던 다이닝 룸, 벽난로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 화가 렘브란트의 호화로운 저택

하르먼스 판 레인 렘브란트

Jodenvreestraat 4, 1011 NK
Amsterdam, Netherlands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

렘브란트가 서른세 살에 구입한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은 그가 이른 나이부터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라 불리며 초상화의 대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유화뿐 아니라 에칭용 조각칼과 드라이포인트 기법 등을 활용한 동판화에서도 재능이 탁월해 빛과 어둠,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정교하게 묘사함으로써 심리묘사의 대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렘브란트는 군주나 귀족이 아닌 주로 민병대 대원의 집단 초상화를 그렸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익히 아는 '야경'(원제: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부대)이다.

당시 그가 살던 집은 렘브란트 하우스 미술관으로 보존되어 여행자들의 주요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초록색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주하는 현관과 살롱에는 수많은 작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당시 손님들이 방문하면 이곳에서 렘브란트나 그의 제자들 작품 중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구매했다고 한다.

'거대한 회화실'이라는 의미인 아틀리에 'Grroote Schildercaemer'은 집에서 가장 넓은 방이자 렘브란트의 화실로, 이곳에서 수많은 명작이 탄생했다. 집 곳곳에는 그가 평소 사용하던 에칭 작업대, 동판, 판화 프레스와 화구, 살림살이뿐 아니라 그의 재산 목록이던 희귀한 수집품까지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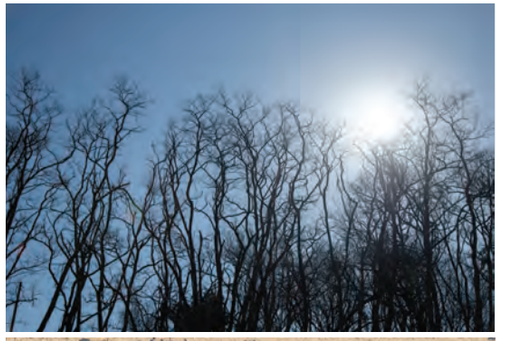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간을 품은 섬
신시모도

2월의 신시모도는 생각보다 더 잔잔했다. 저벅저벅 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본
신시모도의 바다에는 겨울이 멈춰 있고, 바위 위엔 세월이 주름져 있었다.
저마다의 시간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섬, 신시모도다.

글. **편집실** 사진. **한상무**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뭍에서 배로 10여 분. 꽤 가까운 곳에 '신시모도'라는 섬이 있다. 신시모도는
인천 옹진군 소속의 신도, 시도, 모도를 한 번에 부르기 쉽도록 줄인 이름으로,
3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삼형제 섬'이라고도 불린다.

신도의 바다, 땅이 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어 '섬' 여행은 어쩐지 번거롭다는 생각을 깨는 섬.
눈을 돌리면 곳곳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 대신 논과 밭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가 아닌 땅에 의지해 살아가는 섬.
신시모도 중 맏형 격인 신도는 여러 면에서 섬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을 깬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후한 인심으로 서로 믿고 살아간다는 뜻에서 이름 지은
신도는 과거 질 좋은 소금을 만들어내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그래서 진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라 하여 '소금 염(鹽)'자를 써서 '진염(眞鹽)'이라고도
불렀다. 질 좋은 천일염은 짭짤하면서도 그 끝엔 단맛이 난다. 바닷물과 바람,
햇볕 그리고 염부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반짝이는 결정체.

아쉽게도 과거 신도 염전에서 일하던 염부들과 뙤약볕에 반짝이던 염전을 지금은 기록으로, 지목상의 흔적으로만 찾아볼 수 있다.
신도에는 총 4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 신도4리에는 너른 논이 펼쳐져 있다. 섬에서 풍요로운 논이라니. 이 마을은 과거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갈 곳 잃은 실향민이 모여 살아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로울 신(新)'자를 써서 '신촌'이라 불렀다. 당시 150가구의 실향민은 맨손으로 수십만 평의 땅을 일구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도구 하나 없이 긴 제방을 쌓기 위해 지게로 흙을 나르고 맨손으로 돌을 쌓았다. 현재의 풍요로움은 실향민의 슬픔과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겨울을 새긴 시도 수기해변

보드라운 모래가 펼쳐져 있어 한여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갈 만큼 인기가 좋다는 수기해변이지만, 겨울이라 그런지 혹은 연일 이어진 동장군 때문인지 인적이 없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추위에 바다마저 얼었다. 하얗게 얼어붙은 바다라니, 신기하고 놀라운 풍경이다. 밀물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어붙은 바다 위를 호기심에 걸어본다. '바삭-바사삭.' 마치 갓 구운 두툼한 토스트 위를 걷는 듯한 소리가 난다. 갯벌 곳곳에 박혀 있는 바위엔 자로 그은 듯이 반듯한 겨울의 경계가 얼음으로 새겨졌다.

남극의 어딘가를 걷고 있는 탐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심취하다 귓가에 들려오는 맑고 경쾌한 소리에 정신을 차려본다. 깊은 갯골 사이마다 바닷물이 가느다랗게 흐르고 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곳에도 여전히 내일을 향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채색

다리만 건너면 다른 섬이라니. 지척에 마주하다 보니 하나의 섬이라 해도 믿길 정도지만, 섬마다 모습이 제각각인 것도 묘하다. 모도는 수기해변에 이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 3개 섬 중 가장 작은 규모로, 가볍게 트레킹하기에도 부담 없을뿐더러 숲길과 바다, 시간의 나이테가 새겨진 바위 등 다양한 풍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여기에 박주기에 있는 빨간 'MODO' 조형물과 배미꾸미조각공원 내 작품들이 젊은 층의 시선을 끄는 데 한몫했다.

북적거리던 지난날과 달리 겨울의 모도는 이곳 아낙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바위마다 빈틈없이 붙어 있는 굴은 자연이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양식한 굴에 비하면 자잘한 크기가 볼품없어 보여도 속살만큼은 뽀얗게 차올랐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 섬. 해가 뉘엿뉘엿해지자 서둘러 배미꾸미조각공원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모도 해변가 앞에 세워진 '천국의 계단', '물에 빠진 버들선생'이 낙조와 함께 발갛게 물들어간다. 해는 수평선 너머로 금세 져버렸지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여전히 진한 노을빛이 발길을 잡는다. 갯벌에 고루 새겨진 바닷물의 흔적, 그 틈에 오늘의 마지막 빛이 여운을 남기고 사라진다. 캄캄해진 밤하늘에는 오가는 비행기가 시간의 궤적을 길게 남기고, 그 곁에 하나둘 별이 뜨기 시작한다.

신시모도 여행

배편
삼목선착장(세종해운 032-751-2211/ 한림해운 032-746-8020)에서 매시 운항한다. 단, 기상 이변이나 선박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을 버스
매시 30분에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농어촌 공영버스 1번과 2번을 타면 다리로 연결된 신도-시도-모도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문의
032-899-3418
(북도면사무소)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의 샘에서 예술의 물을 긷다

인장공예 명장 박호영

박호영 명장(81)은 자주 점심을 거른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한 자 한 자 정성껏 도장을 새기다 보면, 한 끼 한 끼 무심히 밥때가 지나 있다. 세상의 속도와 상관없이 '몰입'의 밀도로 살아온 날들. 끼니보다 행복에 집중해온 '67년 인장 인생'이다.

글. 박미경 사진. 한상무

좁은 공간, 깊은 우주

밖에 나갈 일이 없어도 그는 매일 '멋진 옷'을 입는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고객이지만, 말끔한 옷차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들을 위한 예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 독특한 문양의 넥타이가 오늘의 의상이다. 애써 고른 옷이 유독 마음에 들면 작업에 임하는 기분도 한결 좋아진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다.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였는데도, 그는 해처럼 웃으며 조각도를 쥔다.

"11월에 주문받은 도장을 이제야 파기 시작했어. 의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업을 빨리빨리 할 수 없어서기도 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진행하니 진도가 더딜 수밖에 없지. 기껏 완성해놓고도 내 눈에 안 들면 다시 시작해.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급하게 해달라는 의뢰는 처음부터 거절이야. 여유가 주어져야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책상 위에 그득 쌓인 주문서가 그의 눈부신 현재라면, 장식장을 가득 채운 감사패와 벽면을 꽉 메운 표창장은 그의 찬란한 과거다. 실평수로 다섯 평이 채 될까 말까 한 가게 안에, 한 사람이 평생 쏘아 올린 별들이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공간이 좁지 않냐 물으면 그는 단박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명색이 '대한민국 명장의 집'인데도, 더 넓고 더 훤한 곳으로 옮길 생각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

"혼자 쓰기에 딱 좋아. 젊을 때 사업을 확장해본 적이 있어. 인쇄소와 문구사를 겸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직원 5명을 두고 일해봤지. 근데 나한테는 맞지 않더라고. 사업도 잘 안 됐고,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이 안에서 도장만 파는 요즘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만족스러워. 남들 눈엔 내가 사양길을 걷는 것 같겠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

이내 사라질 듯해도 끝내 살아남는 것들이 있다. 빠르고 편리한 것에는 쉽게 깃들지 않는, 깊이와 품위와 감성을 고이 간직한 것들. 손으로 새긴 인장도 그 가운데 하나다. 서명으로 도장을 대신하는 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래여도, 수작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최근엔 그에게 주문을 하는 젊은 층도 많다. 사양길이라 느낀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은 '괜한 오기'가 아니라 '진한 긍지'다.

손으로 일일이, 눈으로 깐깐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몇 분이면 뚝딱 도장을 만드는 시대에 그가 모든 과정을 오직 손으로 해내는 건 '도장이 그 사람의 분신과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주는 일. 그 어떤 기계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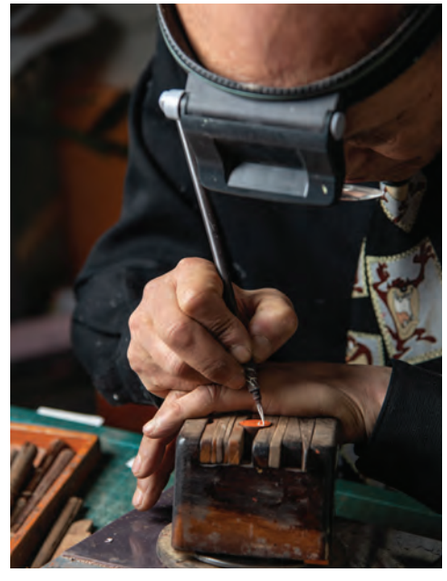
"철학이랄 게 뭐 있나, 그냥 정성을 다하는 거지. 겉으론 그럴싸해 보여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작이야.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

그의 정성은 포자(글자를 배열해서 쓰는 것) 때부터 시작된다. 그 이름에 어떤 서체가 어울리는지, 글자 간 균형은 잘 맞는지, 꼼꼼히 따져가며 글씨를 쓴다. 성명학을 오래 공부해온 그는 고객의 이름에 '복'이 가득하면 그대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과 운을 불러오는 한 글자(도장 인(印), 글 장(章), 믿을 신(信))를 첨가해 인장을 새기기도 한다. 고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보다 깊은 정성이 또 있을까 싶다. 포자가 완성되면 전각을 시작한다. 이때부턴 글자 그대로의 '몰입'이다. 조각도를 손에 쥐고 있노라면, 손님이 찾아와도 모르고 배가 고픈줄도 모른다. 문득 고개를 들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작업은 팍팍 나아가지 않지만, 세월은 휙휙 흘러간다.

"시력도 체력도 예전만 못해서 작업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어. 그래도 나를 찾아주는 고객이 있는 한 끝까지 이 일을 해내고 싶어."

인장은 손으로 조각하지만, 고객 명부는 컴퓨터로 관리한다. 2002년 청계천이 범람하면서 손 글씨로 기록해둔 명부를 모두 잃은 뒤, 기계의 힘을 빌려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로 써온 고객 명부엔 어느덧 4,300명의 명단이 빼곡하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다시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매번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

"수해를 입으면서 그때껏 만들어온 도장 기록도 다 잃었어. 잉크가 번져서 어떤 모양인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이 서류철들은 그때부터 다시 작업한 결과물의 기록이야.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어. 그게 손으로만 작업하는 이유지."



> 아직도 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100% 마음에 드는 인장을 여태 못 만들어봤거든. 남들이 칭찬하는 도장 말고, 나 스스로 인정하는 도장 말이야. 내 평생 '완성'이란 말을 쓸 날이 있을까 싶다가도, 꿈이 거기에 있으니 기쁘게 해나가야지.

아직도 부족하다 말하는 까닭

그의 유년 시절엔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함경남도 신흥이 고향인 그는 한국전쟁 때 가족과 함께 거제도로 피란을 했다. 어린 나이에도 손재주가 좋아서, 원주민들에게 도장을 파주며 생계를 도왔다. 마땅한 재료가 없어 산에서 직접 나무를 해 오고, 적합한 도구가 없어 쇠톱으로 손수 조각도를 만들었다. 그것들로 도장을 새겨주면 쌀 됫박이나마 얻어 올 수 있었다. 밥이 돼주는 기술이 퍽 고마웠다.

"어느 날 서울 살던 육촌 형수님이 거제도로 내려오셨어. 내가 도장 새기는 걸 보시더니, 형님 지인이 서울에서 인쇄업을 한다며 소개해주시더라고. 그때가 전쟁 직후인 1954년이야. 그길로 어머니와 상경해 신당동 '일성당'에 취직했어. 거기서 서예가이자 전각가이던 김두칠 선생을 만났고, 그분 밑에서 전통 인장 기술의 기초를 닦았지."

밤엔 야간고등학교(현 용문고)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갔다. 고단하되 빛나던 청춘이었다. 독립은 1964년에 이뤄졌다. 을지로5가에 있던 '부흥인쇄'에 책상 하나를 놓고, 처음으로 혼자만의 사업을 꾸려나갔다. 그 무렵 인장업자 가운데는 글자를 새길 수는 있어도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이들이 찾아오면 얇은 판화지에 글씨를 대신 써주곤 했다. 뜻밖의 부수입이었다. 이후 을지로, 퇴계로, 종로 일대를 옮겨 다니며 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인장공예기능사, 인장공예산업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현대미술대상전, 한국예술대제전 등에서 수상하며 기술과 예술 사이를 넘나들었다. '박인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낸 건 1977년의 일이다. 이후 종로 일대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도, '도장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의미의 그 상호를 지금껏 한결같이 사용 중이다.

"2004년에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 칭호를 얻었어.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100% 마음에 드는 인장을 여태 못 만들어봤거든. 남들이 칭찬하는 도장 말고, 나 스스로 인정하는 도장 말이야. 내 평생 '완성'이란 말을 쓸 날이 있을까 싶다가도, 꿈이 거기에 있으니 기쁘게 해나가야지."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모두가 불안해하는 '포모(FOMO) 증후군' 시대.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는 오늘도 자기만의 외길을 뚜벅뚜벅 걷는다. 불안도 후회도 없이, 걱정도 미련도 없이. 세상의 물결이 비껴가는 이 가게에, 그만의 봄날이 머물러 있다.

www.lx.or.kr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혹한을 견디어, 달큰한 섬초가 되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비금도의 겨울 시금치는 보다 특별한 섬초가 된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두꺼운 잎은 최대한 땅과 가까이하며 옆으로 자라난다. 모양새는 시금치보다 볼품없을지라도, 달큰함을 품은 맛은 시금치와 비교 불가다. 겨울과 섬,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낸 근사한 섬초로 '나물'이 아닌 멋들어진 요리를 차려보자.

레시피. 전윤정(스튜디오 로쏘) 사진. 한정현

크림 섬초를 곁들인 닭가슴살 스테이크

Chicken breast steak with cream spinach

섬초 효능

해풍을 맞고 자란 시금치의 사촌 격인 섬초는 시금치보다 길이가 짧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분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크림 섬초를 곁들인 닭가슴살 스테이크

재료

섬초 2포기, 닭가슴살 1장, 고다 치즈 40g, 곁들임 채소(방울양배추, 양송이, 파프리카 등) 적당량, 생크림 1/2컵, 다진 마늘 1/2작은술, 바게트,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1. 섬초와 고다 치즈는 잘게 썰고, 곁들임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과 다진 마늘, 시금치 순으로 넣고 볶는다.
3. **2**에 생크림을 넣고 한소끔 끓인 다음 잘게 썰어놓은 고다 치즈를 넣어 녹인 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4.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춧가루로 밑간을 한 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 곁들임 채소와 함께 노릇하게 굽는다.
5. 구운 닭가슴살에 **3**의 크림 섬초를 얹고, 구운 채소와 빵을 곁들인다.

섬초 고르는 법

섬초는 잎이 두껍고 윤기가 돌며 풍성한지를 살펴본다. 또한 일반 시금치와 달리 뿌리 부분이 더 맛있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 보랏빛으로 선명하게 고루 퍼진 것을 사는 것이 좋다.

섬초 샐러드를 올린 플랫브레드

재료

섬초 3포기, 적양파 1/4개, 방울토마토 4개, 베이컨 2장, 피자 치즈 1컵, 토르티아 2장, 파르메산 치즈,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소스 재료

요거트 2큰술, 파르메산 치즈 1큰술, 레몬즙 1/2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1. 섬초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적양파는 채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가른다.
2. 베이컨은 2cm 폭으로 썬 뒤 팬에서 노릇하게 굽는다.
3. 요거트 소스 재료를 볼에 넣어 고루 섞는다.
4. 토르티야에 피자 치즈를 뿌리고, 다시 토르티야를 얹은 뒤 피자 치즈를 뿌려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13분간 굽는다.
5. **1**, **2**, **3**, **4**를 볼에 넣고 버무린 다음 노릇하게 구운 토르티야에 얹고, 파르메산 치즈를 강판에 갈아 내어 풍미를 더한다.

섬초 샐러드를 올린 플랫브레드

Flatbread with a spinach salad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추억 속 로봇을 입체적으로 되살리다

프라모델 덕후 이석희 팀장

오래 전 추억으로만 남겨뒀던 만화영화 속 로봇이 눈앞에 나타나자, 이석희 팀장은 이끌리듯 이 로봇이 있는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이석희 팀장은 마치 만화영화 속 박사처럼 로봇의 부속을 조립하고, 색을 칠했다. 그러자 브라운관 속에 있던 로봇이 입체적인 프라모델이 되어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장소 협조. **코드지 보정점**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경기지역본부 지적사업처에 근무하는 이석희 팀장이고요. 대단지 택지개발 사업과 지적 확정 측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프라모델에 흥미를 갖게 됐나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저 역시 로봇 만화영화에 빠졌었어요. 제가 1972년생인데, 1976년에 <로보트 태권브이>가 처음 방영되었거든요. 딱 로봇을 좋아할 나이에 로봇만화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때 얼마나 재미있게 보았겠어요. 그런데 로봇을 많이 가질 수는 없었죠. 그렇게 동경의 대상으로만 남겨두고, 자라면서 한동안 로봇을 잊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거리를 지나가다가 프라모델을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번화가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사장님께서도 프라모델 덕후셨거든요. 이것저것 알려주시는데, 그냥 나오기도 민망해서 작은 걸 하나 사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5년 정도 이어졌네요.

조립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여러 번 실패했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적은데, 접착제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실패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여기에 도색까지 하면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도색을 하려면 가조립을 했다가 다시 분해해서 하나하나 색을 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해요. 가조립을 하면서 어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떻게 도색할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가동해봤을 때 간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도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도색하면서 염료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뭉치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야 내공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실패했다기보다는 연습했다고 생각해야죠.

팀장님이 느낀 프라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성취감이죠. 프라모델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희열이 굉장히 커요. 인생에서 성취감은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살면서 성취감을 자주 느끼기는 어려운데, 프라모델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수많은 프라모델 중 가장 애정하는 키트를 소개한다면요?

제일 좋아하는 키트는 퍼스트 건담이에요. 1979년 4월 일본에서 <기동전사 건담> 만화영화가 최초로 방영됐어요. 그때 나온 초기 모델 키트에요. 어릴 때 접한 로봇 만화의 로봇과 가장 가까운 키트라서 애착이 많이 가죠. 이 시리즈는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거의 하나도 안 빼고 모두 만들어봤을 정도로 좋아하는 키트에요.

프라모델도 어떤 키트인지에 따라 난이도나 가격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MG(Master Grade) 같은 경우에는 15 cm정도로, 3만~10만 원 선이고요. PG(Perfect Grade)는 30cm 정도 되는데요, 20만~30만 원 가량 돼요. 물론 디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 프라모델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희열이 굉장히 커요. 인생에 있어서 성취감은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살면서 성취감을 자주 느끼기는 어려운데, 프라모델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

테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좋은 프라모델은 가동 부분도 많고, 파츠(Parts) 수도 많아요. 가장 상위 단계의 키트는 30만 원이 넘는 것도 많아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요?

제가 하는 일이 세심하게 챙겨볼 게 꽤 많은데요, 프라모델 역시 장시간 집중해야 하고, 꼼꼼함이 필수적예요. 덕분에 업무를 하는 데 집중력도 높아지고, 꼼꼼하게 챙겨보는 습관도 생겼죠.

입문자에게 맞는 키트를 추천해주세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키트를 하다 보면 싫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과 파츠가 많지 않은 HG(High Grade)급 프라모델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보다가 프라모델에 흥미가 생긴다면 점차 단계를 높여가면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진 디지털 미래를 보다 CES 2021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1'이 막을 내렸다.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세계 최대 전시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자와 IT 분야를 넘어 자동차, 미디어, 유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전시 영역을 확대해왔다. 특히 매년 1월 초에 열리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그해 선보일 전략 제품과 기술을 최초로 공개하는 '쇼케이스'장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CES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1월 11일(현지 시간)부터 14일까지 '올 디지털(All-Digital)' 행사로 열렸다.

글·사진. 권건호 기자(전자신문)

코로나19가 '테크' 영역에 미친 영향… 기술 수용성↑

올해 CES와 이전 전시회의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19가 기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핵심은 다양한 비대면 기술, 로봇 등의 신기술 수용성을 높인 것이다. 예를 들면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된 기술이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 정도로 평가됐다. 사람들이 대면 서비스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급격히 높였고, 이를 위한 기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했다.

기업들도 달라진 환경에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상 속 혁신'을 내세워 똑똑하고 안전한 집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홈(Home)'을 중심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까지 고려하는 혁신 제품과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를 대거 소개하며, 기술 발전이 각 개인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LG 씽큐 앱'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선보이는 동시에 AI로 구현한 가상 인간도 소개했다. 가상 인간 '김래아'는 연설자로 등장해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래 기술로 평가되던 로봇이 실생활에 다가온 것도 두드러진 변화였다. 로봇은 미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였다. 로봇을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었다. 세프봇, 서브봇, 배송봇, 안내 로봇 등 가정 및 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살균 로봇도 소개됐다. 일본 로봇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감정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로봇 고양이 '쁘띠쿠보', 애완 로봇 '모플린' 등의 반려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다.

LX www.lx.or.kr KOR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차·친환경차·커넥티드카, 미래차 향한 질주

자동차 기업들의 변신과 미래차 기술도 주목받았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리 배라 GM CEO는 CES 기조연설을 통해 배송용 전기트럭 서비스 '브라이트 드롭(Bright Drop)'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GM은 전기차 플랫폼과 플러그 모양을 담은 새로운 로고를 발표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선도 전략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올해 출시할 신형 전기차에 탑재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을 발표하고, 아우디는 미래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는 세션을 진행하며 고성능 전기차 '아우디 e-트론 GT'를 공개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는 전장부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국내 부품 기업 만도는 '일렉트릭 초연결' 기술로 통합된 모듈이 운전자와 자율 교감하는 미래차 솔루션을 선보였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5G

최근 몇 년 간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로는 AI, IoT, 5G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역시 이들 기술은 화두가 됐다. 이 기술들은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올해 CES에서는 AI, IoT, 5G 기술이 일상 속으로 한발 더 가까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G는 올해 CES 개막 기조연설 주제로 선정됐다. 개막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는 모든 기기의 초연결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5G로 새로운 퀀텀 점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베스트베리 CEO는 "5G가 미래를 더 빨리 현실로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혁명으로부터 5~7년 떨어져 살던 우리에게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원격 의료를 앞당기는 변화가 빨라졌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5G가 핵심 인프라로서 작동, 새로운 사회 진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는 일상 곳곳으로 더 촘촘히 파고들었다. AI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핵심인 데이터까지 확보되면서 적용 속도가 빨라졌다. CES 2021에서는 자율주행, 의료, 가전, 생활 편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파고든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외신 '디지털 트윈 in 전주'에 주목하다

8개국 디지털 트윈 실증 모델 시연 및 체험

LX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을 외신들에게 시연하는 팸투어를 개최했다. LX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전주시가 주관한 'LX 디지털 트윈 팸투어'는 지난 1월 26일 전주 LX 본사에서 진행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나는 전주'를 주제로 한 팸투어는 11개국 14개 매체의 대면·비대면 외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팸투어는 '디지털 트윈 실증 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뤄졌고,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前 TBS의 <This Morning> 진행자인 알렉스 젠슨이 사회를 맡아 외신 기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전주명예시민 자격으로 비대면 팸투어에 참여한 마누엘 알버레즈(前 영국항공 한국지사장)는"전주가 디지털트윈으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전주를 다시 찾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을 발표하면서 10대 대표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트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국토·도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도시행정에 적용시켜 효용성을 실증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디지털 트윈: 3차원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신산업 지원 및 국토 안전관리 강화에 사용가능한 기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LX,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LX가 부패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 경영을 강화했다. LX는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ISO37001은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규격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LX는 인증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 부패 방지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매뉴얼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LX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조직 내 부서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 요소를 자체 점검해 부패 예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 밀레니얼 보드로 소통 경영 강화

LX는 지난 1월 7일 MZ세대와의 소통과 혁신을 강화하고 젊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밀레니얼 보드를 출범했다.

밀레니얼 보드는 지난해 12월 만 35세 이하, 근무 기간 2년 이상 된 희망 신청자 중 최종 21명을 선발해 구성했다.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세대(직급) 간 소통 매개자 역할과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렬 사장은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데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한 만큼 밀레니얼 보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여기서 제기된 혁신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잘 반영해 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X 공간정보아카데미, K-뉴딜 최신 교육 11월까지 운영

LX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최신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분야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직무대행 최광제)는 지난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0개 재직자 과정과 취업 준비생 맞춤형 채용 예정자 과정을 운영한다.

아카데미의 모든 교육과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간정보관련 과정과 빅데이터 관련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재직자와 구직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또한 재직자 교육 과정은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강좌부터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실무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로 마련됐다. 전년도 96%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채용 예정자 과정은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진행하며, 서류접수와 면접심사를 통해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생들은 공간정보 기반의 프로그래밍 수강을 통해 드론의 안전 운행 경로 계획,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편리한 토지거래 담보, 옥상 공유 등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취업에 성공했다. 교육신청은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lxsiedu.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과정은 강의 시작 2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며, 대규모 기업 재직자에 한해 일부를 납부하게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LX,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LX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했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 건조기나 저온 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접수는 공사 대표전화(1588-7704)로 연락하거나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LX, 4일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온라인 시무식 개최

LX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교육원, 연구원과 함께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이번 시무식은 지난 1월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김정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한국판 뉴딜'완성을 위한 힘찬 대도약을 기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 표준 모델 구축과 확산, 공간정보 시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라는 '두 마리 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트윈 표준 모델 확산을 위한 여건이 확보됐고, 지하 공간 구축·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X공간정보연구원 손종영 원장과 이화영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 임기는 2년이다.

설 명절, 마음을 곱게 담아 전해보세요!

수국 보자기 포장법

수국 보자기 선물 포장 순서

❶ 보자기를 마름모꼴로 펼친 후 상자를 한가운데 둔다.
❷ 상자 윗면 가운데로 보자기 4개의 깃을 한 번에 모은다.
❸ 가운데로 모은 보자기를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고정한다.
❹ 마주보고 있는 보자기 자락을 쫙 편 다음, 4개의 길이가 똑같도록 정리한다.
❺ 보자기의 한쪽 끝을 묶은 고무줄에 2/3 정도만 끼워 넣고 뺀다.
❻ 나머지 깃도 모두 ❺처럼 반복한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KOR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한 선물, SNS에 올려 자랑하고 선물 받자!
다가오는 설 명절엔 고운 전통 보자기로 선물 포장해 마음을 전해보세요!
쉽지만 감동은 무한대! 직접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후기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1. 지면 왼쪽에 소개된 순서대로 보자기를 이용해 선물을 포장한다.
2. 완성된 보자기 선물을 사진 찍고 아래 4개의 해시태그를 적은 후 게시글을 올린다.
3. 이벤트 참여 완료!

#땅과사람들 #LX독자마당 #LX보자기포장 #LX이벤트

<땅과사람들> 2월호
'with LX' Event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취합 후 매월 2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김현태 님(경기도 시흥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보지만 문화잡지처럼 다양한 읽을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이번 호에서는 <#KEYWORD> 코너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2021년 트렌드 내용과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권성경 님(경기도 의정부시)

폐교가 게스트 하우스와 카페, 그리고 목공클래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스하고 아늑한 공간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하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보려고요!

독자 참여, 이렇게 해주세요

- 엽서퀴즈에 정답을 표시해 보내주세요.
- 정답자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매달 20일까지 모바일 기프티콘(휴대번호 필수)을 드립니다.
- 우편엽서는 2월 20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기프티콘 문의 02-2269-7587

독자엽서 당첨자

권성경(경기 의정부시)
김현성(서울 관악구)
김현태(경기 시흥시)
박은식(전남 구례군)
성애선(서울 양천구)
위복량(서울 양천구)
이준범(광주 남구)
전영서(경기 성남시)
채순옥(경북 상주시)
최남이(대구 달서구)

<땅과 사람들>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 더욱 성장하는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기간 2021.2.1.~2022.1.31.
동전주우체국 승인 제40109호

받는 사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LX) 홍보처
<땅과 사람들> 담당자 앞

5 4 8 7 0

땅과 사람들
2021 February Vol. 205

구독 신청 안내

<땅과 사람들>은 독을 원하시는 분들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신청, 주소 변경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에서 도와드립니다.
전화 063-713-1166 이메일 lx0102@lx.or.kr

웹진 이벤트

<땅과 사람들> 웹진(lxwebzine.com)에 안내된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하여 퀴즈를 맞추고 정답을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이벤트

- 매 호 'with LX'에 소개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따라 해보세요!
- 해당 이벤트에 대한 후기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첨부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땅과 사람들>에 참여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꼼꼼하게 읽고 독자엽서에 이번 호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책을 만듭니다.
- 다음 호에 수록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전해주세요. LX에 대한 궁금점, 다루었으면 하는 인물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곳에 풀칠해주세요

독자 의견

1.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글이나 흥미로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2. <땅과 사람들>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LX에 대한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퀴즈

다음 중 '설먹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① 덜 익은 음식을 미리 먹다　　② 넉넉하게 제대로 먹지 못하다

○ 구독 신청　○ 주소 변경

이름(코드번호)

신규·변경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전화 063-713-1166

이메일 lx0102@lx.or.kr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목적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외보 <땅과 사람들> 게재, 당첨자 모바일 기프티콘 발송
·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게재, 당첨자 기프티콘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당첨자 상품은 모바일을 통해 지급되므로 꼭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Pictures of the Month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 시대의 집

©LX 홍보처 문병희

아주 작은 곳이라도 내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은 누군가에게 분명 좋은 집일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새로이 모습을 바꾸는 요즘의 집. 오늘 당신의 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